

보도시점 2025. 9. 12.(금) 17:00 배포 2025. 9. 12.(금) 09:00

이젠 만나러 갑니다 농식품부, '찾아가는 이동장터' 발대식 개최

- 올해부터 농촌 취약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장터' 본격 추진
- 9개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따뜻한 농정 구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취약마을에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을 배달·판매하는 '찾아가는 이동장터' 발대식을 전남 함평군 해보면 공동홈센터*에서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점차 확대하여 농촌 마을에 소매점이 사라져 주민들이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 등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식품 사막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2020년 구축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로 주민 복지를 위한 공유주방, 주민쉼터 등으로 활용

** 식료품 시설 평균 접근시간(분, 자동차 기준): (농촌 읍/면) 10.1/14.3, (도시) 3.9

올해는 9개 시·군*(1차 5개 + 2차 4개)에서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중앙 및 지역 농협, 그리고 전남 함평 등 1차 시범지구인 5개 시·군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 (1차, '24년 선정) 전남 함평·장성, 전북 완주, 충북 청주, 경북 의성
(2차, '25년 선정) 전남 순천, 전북 임실, 충남 당진, 강원 양양

발대식이 개최된 전남의 함평군 해보면은 금덕리, 문장리 등 10개의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7개의 법정리에는 소매점이 없어 현재 일부 마을에서는 생필품 구매를 위해 자동차로 20분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함평군은 금덕리에 위치한 나비골농협 하나로마트를 거점으로 이동장터를 운영, 배후마을에 생필품을 배달·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찾아가는 이동장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이동장터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자체, 농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역공동체와 협업*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모델의 이동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 지자체는 차량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지역공동체는 차량과 인력 운영

< 찾아가는 이동장터 모델 >

- (정기순회형) 배후마을을 정기적으로 순회
- (교통연계형) 취약계층에게 중심지까지 이동 서비스 제공
- (주문배달형) 소매점 등과 연계해 사전 주문받은 식료품을 배후마을로 배달
- (민간참여형) 지역공동체를 참여시켜 민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운영체계 구축

한편, 발대식 이후 송 장관은 인근 경로당을 방문해 이·미용, 사진촬영 등 재능 나눔 현장을 함께 했다. 또한 이동장터를 직접 찾아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생필품을 구매한 한 주민은 “집과 마트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기도 불편했는데, 이동장터가 매주 집 근처에 와준다고 생각하니 든든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은 “최근 지역사랑 상품권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동장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니 너무 편하다”고 말했다.

발대식에서 송 장관은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농촌 주민들이 건강과 영양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새정부 핵심과제로서 농촌에서 찾아가는 생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농촌 주민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복지 농촌, 따뜻한 농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찾아가는 이동장터’ 개요
2. 함평군 ‘황금마차 나비장터’ 개요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책임자	과 장	김소형 (044-201-1541)
		담당자	사무관	김성훈 (044-201-1547)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송재원 (044-201-1571)
		담당자	사무관	박명훈 (044-201-1579)

- (배경) 인구 감소, 저밀도·분산거주 등으로 민간의 생활서비스 공급 기능이 약화되면서, 생필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농촌 마을 증가
 - * 전국 37,563개 행정리 중 27,609개(73.5%) 행정리는 해당 행정리 안에 음식료품 소매점이 없음(통계청,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21.12.)
- (목적) 농촌 식품사막 및 교통 접근성 취약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 곳곳을 찾아가는 이동식 생필품 판매·배달 서비스 제공 및 주민과의 소통 확대
- (운영방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과 연계
 - 농식품부-지자체-지역공동체가 협업을 통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을 기반으로 참여 기관의 예산 (사업 운영비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참여 주체간 협약에 기반한 상호 협업 지원체계 플랫폼 구축
 - * 지자체와 지역 공동체(농협 등) 중 이동장터 운영주체 간 참여 범위와 역할, 예산 지원 등에 대한 협약체결(지자체 주관 협약서 작성)

《사업 주체별 역할》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의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사업비 일부(차량 구입) 활용
지자체	이동식 차량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지역 공동체	이동식 차량 및 인력 운영 * 지역공동체는 농협,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등을 포함

- (사업유형) 서비스 유형, 전달방식, 참여주체 등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세부 사업유형을 자율적으로 선택·운영

□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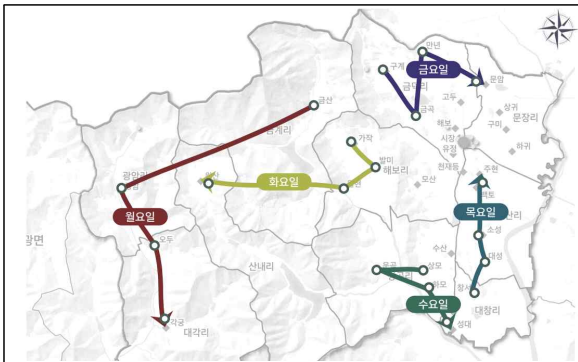
- 농촌 지역 교통 취약마을 주민 대상 생필품 전달 체계 구축
- 이동장터 운영 활성화와 공동체적 가치 확산을 위해 지역 주민이 체감가능한 S/W 프로그램* 접목 시행

*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현재 운영 중인 복지·문화·교육·의료 서비스 등과 연계 예정

□ 운영주체

- (함평군) 차량 유지관리비 지원
- (나비골농협) 차량 운영 및 인력 운영 지원
- (해보면 주민위원회) 이장단·부녀회·지역사회 봉사단체 협조

□ 운영 세부 내용(안)



- (운영시간) 09~18시, 마을별 1시간 체류
- (운영일수) 주5일, 마을별 월2회
- (운영방식) 주문배달, 현장판매 병행
- (결제방식) 카드, 현금, 지역화폐

□ 차량 사진(3.5톤 특장차량)



황금마차 나비장터 입구



황금마차 나비장터 내부